

## 여름 그리운 산, 그리운 바다(其六) : 飛應島의 快遊

| 채만식 |

동아일보, 1934. 7.11

연전 고향에 내려가 잇었을 때다. 여름도 한 여름이든 팔월 초생. 별로 할 일이 없이 놀고 잇는 봄이라 늘 군산을 오면 가면 하든 터인데 이날도 아침일즉 군산을 가서 형님 집에 들렀다가는 바로 R군을 찾아갔다. 마침 일요일이라 다른 친구들도 여러 사람 와서 모여 잇었다.

비응도에서 해수욕장이 개설되었다는 이야기가 나고 또 선편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자 드디어 R군의 발의라느니보담 알선으로 해수욕을 가게 되었다.

말이 해수욕을 겁내 했지 실은 해수욕에는 인연도 멀고 또 흥미도 그다지 끌리지 아니하는 일행들이다. 차라리 멀리 황해 바다 속에 떠러져 잇는 비응도라는 섬과 그리고 배를 타고 넓은 바다에 나가서 하로를 보낸다는 데 더 매력이 잇었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 한사람 해수욕복 한 벌도 작만하려 아니하고 타올 한개씩만 손에 든 채 허봉지등 선창으로 뛰어나갔다.

통통통통- 우리가 탄 커다란 목선을 끄는 조고만 발동기선이 연해 파란 가스를 뿜으며 널따란 금강 어구로 내려가 있다. 앞에서 끄

은는 발동기선에도 뒤에 끌려가는 우리배에도 사람은 가득가득 실렸다.

바른편으로는 충청도의 한산, 서천 외인 편으로는 유명한 군산 시외의不二 식민촌이다.

강구로 벗어나 바다 가까이 감을 따라 물이 조금씩 맑아진다. 군산 앞의 탁류란 유명하고 또 물결이 거세이기로도 유명하다.

물이 맑아짐을 따라 육지 가까이서는 보지도 못하든 고기가 노는 것도 신기하다. 그 중에도 놀랜 것은 鮫魚다. 처음에는 사람의 대가리가 통에 떠잇는가 하였다.

000 월신 벗어져나니 비로소 끝간줄 모를 바다의 둥그런 수평선이 시야로 들어온다. 작난감 같은 조고만 섬들이 담슴담슴 물에 떠 있다. 돛을 세운 어선들이 씻는 듯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고 있다. 물이 비록 완전히 맑지는 못할지언정 역시 한 폭의 풍경화 다운 느낌이다. 그리고 바다의 정취가 솟아오른다.

물론 바다래야 물에서 겨우 몇 십리 밖에 떠나지 못한 곳이다. 만돈급의 큰 배를 타고 국제적 큰 항구를 드나들거나 대양을 건너는 그러한 특이하고 웅대한 정취는 없다. 차라리 관부연락선을 타고 현해에서 달밤을 새이든 때만도 못하다.

그러나 나는 크고 적고 간에 자연의 시적 혜택을 그닥지 입지 못하고 자란 터이라 비록 조고마하고 빈약한 풍경이나마 대적하는 족족 감격이 솟아오르군한다.

속력이 뜯겨도 별로 지리한 생각이 없이 네 시간만에 목적인 비응도에 우리배도 닿었다.

해수욕장으로 설비해 놓 곳에는 그야말로 사람의 대가리가 콩나물 대가리 같이 옹기종기 들백혀서 오물거린다. 외롭든 해중의 비응도가 이게 웬 야단인가해서 놀렷으리라. 우리 일행은 해염에는 전부가 무

데(제로)다.

그리하여 씬 4척5촌의 곳까지를 생명선으로 하고 그 근처에서 오물거렸으니 그다지 자민들 잇을턱이 없다. 다행히 세 놓은 뽏트가 잇어서 나와 R군은 고놈을 잡아 탕다.

뽏트의 힘을 빌어 꽤 깊은 데까지 나간 것까지는 좋았으나 나가서 보니 바닥이 새어 물이 반이상이나 잠기었다.

인제는 죽는가 싶어 새파래진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노를 짓는데 그 동안에 뽏트는 완전히 물에 잠기었다. 그러나 그라앗으리라든 뽏트는 그대로 종시 가라앉지를 아니한다. 바닷물에서는 침수가 되어도 뽏트는 침몰이 아니된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다.

해가 거진 저물어서 돌아오는 배를 탕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잇엇기 때문에 민물을 꼭 맞후어 떠나야 할 배가 한 시간이나 늦엇었다. 이 한 시간의 압값음을 우리는 톡톡히 받아야 할 것은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멀리 육지가 바라보일 때에 해가 저물었다. 우리의 배는 속력을 돕기 위하여 돛을 달았다.

갈매기가 날 저문게 한심타듯이 빙빙 날어 돌며 지저귐다.

나는 마도로스나 대양을 건너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육지에 가까이



다다리 항구 밖을 들어 올 때에 갈매기 나는 것을 보는 것이 무엇에도 비길 수 없이 감회가 깊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미상불 갈매기는 마도로스에 문자없는 시를 준다.

조수는 다시 쓰기 시작하였다. 짐은 무겁고 마력은 약한 우리의 배는 거세게 써내라는 역류에 난항을 계속하였다. 밤 열두시가 지나서 겨우 군산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게 될 때는 어쩐지 이국의 낯선 항구에 들어가는 듯하여 이상도 하였거니와 반갑기도 하였다.

※ 편집자 : 이 글은 1934년 7월 소설가 채만식이 동료 문인들과 함께 군산 비응도를 다녀오고 나서 동아일보에 게재한 글이다. 80여년이 흘렀지만, 우리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바닷가에서 즐기는 양상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해주는 글이다. 군데군데 바다와 배를 대하는 채만식의 무의식적 사유를 접할 수 있어 흥미로울 듯하여 당시 맞춤법 그대로 실었다.